

## 피아노 이화경

### 스페인 음악 세계로 초대

깊이 있는 타건과 유려한 선율을 통해 생동감을 보여주는 피아니스트 이화경의 독주회가 11월 17일 금호아트홀 연세에서 열린다. 그녀는 이번 무대에서 스페인 음악을 연주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선보일 예정이며, 인터뷰를 통해 '새로운 도전'에 대해 두려움 없이 여러 시도를 해보고 싶다고 전했다.

#### 선생님에 대한 소개

음악을 좋아하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클래식을 접하게 되었고, 우연한 기회에 배우게 된 피아노에 흥미를 느끼고 재능을 보여 지금까지 피아노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전공으로 진로를 정한 후 부산에 고,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했고,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대와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국립음대에서 공부했습니다. 유럽 무대에서 협연, 독주, 실내악 등의 연주 활동 후 귀국하였으며,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와 한국예술영재교육원 통영캠퍼스에 출강하며 후학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 오는 11월 17일에 열리는 독주회에 대한 소개

우선 프로그램을 정하려던 그 시기에 저는 스페인 작곡가들의 음악 매력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대에서 관객과 함께 제가 느꼈던 감정들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프로그램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1부에 연주하는 스페인 작곡가 그라나도스와 알베니즈는 쇼팽, 베토벤처럼 익숙하지 않은 작곡가이지만 곡에 나타나는 스페인 전통 선율, 리듬, 화려한 색채와 장식적 요소들이 관객들에게도 아주 매력적으로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부에 연주되는 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은 음악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본 경험이 있을 만한 유명한 곡인데요. 무소르그스키가 화가인 하르트만의 추모 전람회에 감명 받은 10개의 작품을 각각의 음악으로 묘사했고, 곡들 사이에는 프롬나드(의미: 산책)를 덧붙여 한 그림에서 다음 그림으로 옮겨지는 장면을 표현했습니다. 관객들은 음악을 들으면서 직접 전람회라는 공간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라나도스, 알베니즈, 무소르그스키 이 세 명의 작곡가는 나라는 스페인, 러시아로 다르지만 국민악파에 속하는 작곡가로서 자신의 나라의 전통 민요나 민속춤, 선율, 리듬 등을 음악에 곡 전반에 걸쳐 표현했습니다. 아마 연주를 들으시면 나라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독주회를 준비하면서 느낀 새로운 점, 즐거운 점, 어려웠던 점

요즘 몸의 중요성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피아노 연주는 결국 나의 몸으로 악기를 연주하는 것인데, 피아노를 치는 것이 얼마나 육체적인 일인지를 종종 까먹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육체적 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소모도 많이 되는 작업이기에 정신적으로도 밸런스를 잃지 않으려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내가 행복하고 음악을 즐길 수 있어야지 연주를 듣는 청중들도 음악에 몰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현재 교육자와 연주자로서 느끼는 고민

요즘 '어떻게 하면 이 학생의 개성을 살리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기계처럼



‘이렇게 쳐야 잘 치는 연주야’라는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각자의 개성은 더 살리면서 청중들에게 설득력 있는 연주를 할 수 있게 방향을 이끌어 주고 싶습니다. 동시에 음악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내면이 그대로 표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음악만 가르치는 스승이 아닌 한 인격체가 더욱 성장해 나가는 것에 도움을 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그것의 연장선으로서 저 또한 저만의 색채와 개성을 잃지 않으면서 더 많은 청중들과 공감을 할 수 있는 연주를 하고 싶습니다.

### 독주, 협연, 실내악 각각의 매력과 차이점

무대를 올라갈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믿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무대 위에 연주자가 있으면 그 연주자가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인공이 눈치를 보게 된다면, 그 떨림과 불안은 관객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기 때문에 저는 어떤 연주는 ‘내가 연습한 것을 믿음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연주하자’라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혼자 음악을 완성하는 것과 여럿이서 함께 음악을 완성하는 것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독주는 저만의 음악적 이야기를 다양하게 풀어내고 그것을 무대 위에서 관객과 매우 가깝고 직접적으로 호흡한다는 것이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반면, 실내악이나 협연은 다른 악기들과 함께 호흡하고 교감하면서 만들어가는 음악이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들이 독주와는 또 다른 즐거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많은 연주자와 함께하는 작업이기에 다른 이들의 음악적 아이디어에서 많이 배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장기적인 마라톤 경기 위에 있는 선수들과 비슷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골인 지점까지 가기 위해서는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 그리고 꾸준함이 필요하죠. 자신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피아노에서만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 전반에 걸쳐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가령 급하게 치는 것이 습관적인 학생들은 평소 생활에서도 그러한 경우를 찾아볼 수가 있죠.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음악이 닮아있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렇게 자신의 음악을 성장시키면서 조금해하지 않고 노력하는 꾸준함도 함께 키워 나가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음악에 마음을 열면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는 또 하나의 언어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음악을 공부하는 동안 작곡가의 곡을 만나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마음을 음악으로 듣고 나누는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

올해 실내악 연주의 기회가 많았었는데 다양한 악기와 함께 호흡하며 만들어가는 음악에 대해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쪽으로요. 독주 위주의 연주를 하다가 실내악 연주를 하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시선을 가지지 않게 균형을 잡아주는 느낌을 받는데, 실내악 연주들은 저의 음악적 시야를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실내악 연주도 이어 갈 생각입니다. 물론 독주자로서 새로운 레퍼토리에 대한 영역을 계속 넓혀 나가면서 음악을 보다 풍요롭고 넓은 시야로 바라보며 그 안에서 저를 찾아가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

글 구수진



## 피아니스트 이화경

깊이 있는 타건과 유려한 선율을 통해 생동감을 보여주는 피아니스트 이화경은 부산예술고등학교(사사 유미정, 권숙희)를 거쳐 한국예술종합학교(사사 김대진)를 졸업하였다. 이후 도독하여 라이프치히 국립음대(Hochschule für Musik und Theater Leipzig)에서 석사과정(Diplom)을 심사위원 만장일치 만점 졸업과 최고연주자과정(Konzertexamen)을 최우수로 졸업하였고(사사 Gerald Fauth)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짜르테움 국립음대(Universität Mozarteum Salzburg)에서 Postgraduate 과정을(사사 Pavel Gililov) 만점 졸업하며 전문 연주자로서의 단단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일찍이 음악춘추콩쿠르, 음연콩쿠르, 부산음악콩쿠르에서 입상하였으며 인제대학교 음악콩쿠르 1위 및 쇼팽 특별상을 수상하며 음악적 두각을 나타낸 그녀는 이탈리아 8th Padova International Music Competition 1위를 수상하며 뛰어난 기량을 인정받았다. 그녀는 조선일보 신인음악회와 Euro Art Music Festival Prize Winner Concert에서 연주하였고 멘델스존 서거일 기념으로 독일 Leipzig

Gewandhaus 대공연장에서 멘델스존 피아노 협주곡을 협연하면서 정식 유럽데뷔를 시작하였다. 독일 Leipzig Volkszeitung 신문은 “그녀의 연주는 반짝이고 우아했으며 사람을 현혹시키는 빛과 같았다”라고 평하였다. 이 외에도 독일 Deutscher Musikrat Dirigentenforum과 협연, 독일 바이로이트 Steingraeber & Sohne Haus에서 초청연주 및 독일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에서 다수의 독주회, 실내악 연주 등 수많은 무대에 오르며 그 실력을 당당히 인정받았고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다양한 연주를 통해 현지 음악인과 관객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귀국 후 금호아트홀,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이천아트홀, 부산금정문화회관 등에서 독주 및 실내악 연주를 했으며 제4회 대한민국 예술원 한국 젊은 연주가 초청 연주회, 서울시 유스 오케스트라와 협연활동을 통해 전문 연주자로서의 입지를 굳혀나갔다. 성신여대, 단국대, 숙명여대 특수대학원, 서울시 영재프로그램, 경상북도 김천영재원 강사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영재원 통영캠퍼스에 출강하며 후학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